



고려해운

중국 상해 현지 법인 설립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중국 상해에 단독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 1월1일부로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해 현지 법인은 고려해운이 100%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물류 산업의 성장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려해운은 1994년 중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상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시장의 향후 물량 증대에 따른 영업력과 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주요 대중국 사업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지역을 먼저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향후의 사업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후 기타 주요 거점으로의 확장을 통해 대 중국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해운은 2009년1월1일부로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장 : 구본록(부산지점 영업부 영업팀장) △차장 : 김정훈(부산지점 영업부 고객지원팀장), 김대봉(부산지점 영업부 영업팀), 이금석(영업전략부 운영팀) △과장 : 전성락(대구사무소장), 김찬영(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유영운(운항관리부 해상기팀), 박재운(부산지점 운항지원부 운항지원팀), 이종래(인도 뭍바이사무소장), 장진호(컨테이너영업부 수출영업팀), 김은태(부산지점 영업부 고객지원팀), 설경완(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대리 : 김태환(경영관리부 인사팀) 외 총12명 △계장 : 이광희(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외 총3명

남성해운

홍콩법인 설립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은 1월12일자로 홍콩에 현지법인인 남성해운 홍콩유한공사를 설립, 영업을 개시했다. 남성해운의 해외법인은 이번 홍콩법인 설립으로 일본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남성해운은 중국 본토에 모선 기항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각 도시에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남성해운 홍콩유한공사(Namsung Shipping Hongkong Limited)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Rm. 2408-2410, 24/F, Nan Fung Tower, 173 Des Voeux Road, Central, Hong Kong △TEL +852-3426-3551 △FAX +852-3426-9569

삼탄

외국인 근로자위한 문화축제 후원



삼탄(대표 이찬의)은 1월21일 재한 몽골학교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축제를 후원하였다.

문화축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락교회의 베다니홀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베다니홀 1층뿐 아니라, 2층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다문화 가정이 모인 축제인 만큼, 몽골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의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장기자랑과 함께 각국의 전통 공연을 실시하였다.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동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들뜬 표정이었으며, 장기자랑과 전통공연 진행 동안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축제를 만끽하였다.

쉬핑랜드

한국 미식축구 최강자 등극

쉬핑랜드(대표 이희선) 바이킹스가 한국 미식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사회인 리그 광개토볼의 우승자인 쉬핑랜드 바이킹스는 1월11일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14회 한국미식축구 결승전 김치볼에서 대학 우승팀인 동의대학교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쉬핑랜드 바이킹스는 전반 동의대의 전략에 말려 전반에만 14점을 빼앗기는 등 초반부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쉬핑랜드는 후반에 들어 동의대의 전략 분석과 함께 쿼터백을 압박하는 필드포지션을 활용해 상대방의 공격을 무위로 줄였으며, 이후 리드 코크번과 김완진의 활약으로 20대 14의 역전승을 따냈다.

이번 대회 MVP는 바이킹스 1번 최성진 선수가 수상했으며, 쿼터백 강호길이가 우수공격상을, 라인백 김도한이 우수수비상을 수상했다.

STX팬오션

조난 선원 15명 구조

STX팬오션(대표이사 이종철 부회장)은 자사 선

박 STX ACE7호가 지난 1월8일 말레이시아 원해에서 기상악화로 조난 중이던 베트남 선박 선원 15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

탱커선박인 STX ACE 7호(1만6,000DWT, 선장 차상근)는 당시 현지시각 오전 8시 25분경 필리핀 말람파야(MALAMPAYA)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후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조난선으로부터 조난 교신을 받고, 구조를 위해 항로를130도 급히 수정하여 조난선(위치 05-34.0 N 108-04.0E)에 접근했다.



하지만 기상악화에 시계까지 불량한 상황이다 조난 선박 선원들의 미숙한 영어 탓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14시경, 1차로 선원14명의 선원을 구조했다.

한편 구조된 선장으로부터 조난 직후 조기퇴선한 1명의 선원이 인근 해역에서 표류 중일 가능성을 전해 듣고 다시 끈질기게 주변 해역을 수색해 동일 17시 28분경 선원 15명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구조활동의 성과로 STX ACE 7호는 싱가포르항 만청으로부터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STX ACE 7호의 선장 차상근씨는 "조난 신호를 접수하고 지체없이 현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인명을 구했으니 올 한해는 좋은 일들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금상선

제2회 해운농구리그 우승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제2회 해운농구리그에서 우승했다.

지난 1월6일 장금상선과 현대상선이 펼친 제2회 해운농구리그 결승전에서 장금상선이 28대 26으로 현대상선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해운농구리그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상선에게 패하며 현대상선에 챔피언 타이틀을 내줬던 장금상선은 올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상선과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우승컵을 가져왔다.

챔피언 결정전은 시종일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치열한 경기였다. 홈팀인 현대상선의 탄탄한 조직력으로 장금상선은 초반 연속실점으로 0대 8까지 몰렸으나 2쿼터 중반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종료직전 동점상황을 맞으며 위기에 몰렸으나 차분한 자유투 득점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5개팀에서 시작한 2008 해운농구리그는 올해 장금상선, 현대상선, 한진해운, 고려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선우상선, STX팬오션 등 총 10개팀이 참가해 지난 3월부터 5개팀씩 OCEANIC리그와 CONTINENTAL리그로 나누어 정기리그를 펼쳐왔다.

OCEANIC리그는 장금상선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려해운과 유코카캐리어스가 2~3위, CONTINENTAL리그는 현대상선이 우승을 차지했고 한진해운과 선우상선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한진

군산 - 광양간 친환경 연안해송 개시

종합물류기업 한진(대표 이원영)이 군산시와 군산~광양간 연안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오는 2월10일 선박운항을 개시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규항로는 군산과 광양항을 주 2회 왕복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215TEU(4000톤)급 선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취급물량은 GM대우 반제품 수출물량, 페이퍼코리아의 원재료 수입 및 신문용지 수출 물량 등으로 월평균 4천TEU, 연간 5만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전망이다.

또한 한진은 올해 하반기 1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4회 왕복 운항하는 등 친환경 연안해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진은 이번 군산-광양간 신규항로 개설에 맞춰 기존의 군산물류센터를 군산지점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연안항로 조기안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산-광양간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는 물론, 연간 140억원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전북지역 수출입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한진과 군산시 등은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군산항의 물류활성화 지원은 물론, 전라북도 소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진해운

중국삼성전자 '베스트 파트너 대상' 수상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지난 1월9일 삼성전자 중국총괄(중국본부)로부터 '2008년 베스트 파트너 대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중국총괄은 선사 및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선적 정보 제공 및 클레임 처리 등 고객 서비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 선사를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진해운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가치 제고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3개 선사 중 평가 1위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5년 연속 수상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진해운은 1989년 대리점 영업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업무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현대상선

국내최초 홉세관 AEO 인증

현대상선(사장 김성만) 구주본부(Hyundai Merchant Marine (Europe) Ltd.)가 국내 해운업

계 최초로 영국 세관(HM Revenues & Customs) 으로부터 EU가 공인한 AEO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공인 경제 운전자) 인증을 받았다.

AEO는 EU가 효과적인 수출입화물 관리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수출입 및 물류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AEO 인증을 받은 현대상선은 선박 입항시 세관 검사 우선권 부여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대상선은 기업 전반 현황, 재정 상태, 과거 3년간 세관규정 준수 기록, 영업 및 운송에 관한 각종 데이터 관리 등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현장 실사와 인터뷰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AEO 인증을 받았다.

현대상선은 "사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개설하고 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결과 국내 해운사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AEO 인증사로서의 혜택을 이용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지역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해 고객 선호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5년 대량살상무기 운반 및 반입 방지를 위해 수출입화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국제무역은 활성화하는 관세 규약 (Community Customs Code)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EU 세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AEO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받은 업체의 무역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에 영국의 구주본부가 AEO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소속 국가의 법인들이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상선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상

선은 우선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되었던 '본부' 체
계대신 상위 개념인 '부문'을 도입해 기존 4본부 42
개 팀이었던 조직을 4부문 11본부 42개 팀으로 개
편했다.

또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사담당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재무담당 CFO(Chief Financial Officer),
업무혁신과 정보 담당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신규로 임명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미국발 금융
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부문장(신설) : 컨테이너사업부문
김윤기 전무, 벌크사업부문 최형규 상무, 해사부문
권주석 전무, 기획지원부문 강성일 상무 □본부장
(4개본부 → 11개 본부) △컨테이너 사업부문 : 컨테
이너기획본부 신재희 상무, 컨테이너영업관리본부
이석동 상무, 컨테이너운영본부 정한기 상무보, 한
국영업본부 김지택 상무, 부산운영본부 김인용 부
장 △벌크사업부문 : WET 벌크본부 나성화 상무
보, DRY 벌크본부 최형규 상무 △해사부문 : 해사
지원본부 이택규 상무, 선박정비본부 황정수 상무
보 △기획지원부문 : 경영기획본부 임영수 상무보,
경영지원본부 김덕만 상무보 △해외 : 미주본부 송
요익 상무, 구주본부 김수호 상무, 동서남아본부
이영준 상무보, 중국본부 손영일 상무보 □신설 :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김창우 상무,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이백훈
상무, CFO(Chief Financial Officer) 최경호 상무

[직원승진] △부장(부장/부장대우는 부장으로 직
위통합) : 아주영업관리팀 이동훈, 아주영업관리팀
김 신, 컨테이너운항팀 한통현, 컨테이너물류기획

팀 김진우, 아주수출팀 이은수, 수입팀 양동욱, 부
산운영팀 황기성, 해무팀 조인석, 뉴저지지점 백호
중, 구주본부 주진우, 이탈리아법인 오동환, 동서
남아본부 박병주, 동서남아본부 성혁제, 베트남법
인 이태현 △차장 : 윤리경영팀 강소영, PI추진팀
최준석, 한순구, 구매팀 김재영, 법무보험팀 백창
우, 컨테이너항로기획팀 정재학, 이상철, 김민강,
미주영업관리팀 유관룡, 문인환, 아주영업관리팀
김태우, 컨테이너서비스지원팀 임종일, 컨테이너
물류팀 최 원, 구주수출팀 박범상, 아주수출팀 송
준석, 고객지원팀 박현하, 부산운영팀 전광석, 조
형렬, 부산고객지원팀 최정석, 벌크전략개발팀 정
준, 부정기선팀 권영덕, 인재개발팀 박재원, 해사
기획팀 정광조, 해무팀 이충호, HASA HQ 김태명,
김경섭, 이경욱, 시애틀지점 조용원, HII 이승훈,
구주본부 권성주, 구주본부 강병권, 네덜란드법인
임상대, 오스트리아법인 김병영, 동서남아본부 박
유서, 오승호, 중국본부 권윤석, 옥윤길, 김종석,
일본법인 오정민, 호주법인 이현주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 취임



지난해 8월 인천항
만공사 사장직에서 물
러났던 서정호 전사장
이 1월22일 경기평택
항만공사 사장에 취임
했다.

서정호 경기평택항
만공사 사장은 전임 양병관 사장의 임기가 1월10일
로 만기됨에 따라 지난 1월8일부터 14일까지 실시



된 사장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임명절차가 마무리됨에 1월22일 오전 취임식을 가졌다.

서정호 사장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공보관, 안전관리관, 해운물류국장, 해양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해양수산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05년 출범한 인천항만공사 초대 사장을 맞아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인천항만공사를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키는 뛰어난 경영수완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정호 사장 약력] △1954년 9월 5일생 △1973년 천안고등학교 졸업 △1977년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1986년 6월 미국 워싱턴대학교 해사대학원 해사학 석사 수료 △1975년 5월 행정고시(제17회) 합격 △부산청 항무과장, 해운국진흥과장, 주중해무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2003년 3월 : 해양수산부 공보관, 안전관리관, 해운물류국장, 해양정책국장 △2004년 10월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2005년 7월 : 인천항만공사 사장 △2009년 1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케이엘넷

2009 경영혁신 발표

케이엘넷(www.klnet.co.kr 대표 : 박정찬)은 1월12일 조직개편과 함께 200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비용절감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2009' 을 올해의 경영 방침으로 정한 케이엘넷은, 먼저 기존 본부-부서-팀 체제의 조직을 두 계층으로 축소하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하여 본부장 산하에 팀만 두어 의사결정 단계 축소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

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5본부2실1소9부에서 4본부1실1소7팀으로 축소됐다.

이와함께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되지만, 올해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10% 성장한 330억원으로 정하고, 기존 주력사업인 전자물류사업 및 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보다 집중하는 한편, 세계표준에 맞춘 고객서비스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케이엘넷은 이를 위해 △주력사업 역량집중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 △신사업강화로 미래성장기반 마련 △고객지향의 고품질 서비스 체제로 전환 △내부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조직슬림화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5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케이엘넷은 먼저 주력사업인 전자물류서비스(e-Biz)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통한 고객확대 및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10년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에 따른 물류기업 대상의 토탈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신사업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며, IT제품을 통한 유통사업 진출과 u-IT기반의 물류보안 솔루션 출시 등을 통해 수익다변화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인증 획득한 CMMI의 내재화와 함께, IT아웃소싱 부문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ISO 20000과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0071 인증을 추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내부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활동을 통해 물류IT서비스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외사업부문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항만운영솔루션(Port-MIS)과

터미널솔루션(ATOMS)의 해외판매를 반드시 성사시킬 예정이며, 더불어 한중간 컨테이너위치추적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케이엘넷은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이동을 했다.

△본부장(임원) : 전자물류사업본부장 문백기 상무, IT사업본부장 심중보 상무, 신사업본부장 최운호 상무, 남부영업본부장 김종렬 상무 △팀장(부서장급) : 경영지원실장 이철희, 연구소장 이원준, e-Biz사업팀장 양귀선, SM사업팀장 김학동, 기술지원팀장 최경식, SI사업팀장 임진형, 컨설팅팀장 김진식, 신사업팀장 이정신, 해외사업팀장 이경환

한국선급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이 경영진과 간부직원들을 향해 2009년을 경비절감을 통한 내실과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1월19일 한국선급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선급 대전 본부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비절감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적 수익창출을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고 전했다.

한국선급은 이날 모인 46명의 부서장 및 지부장과 화상회의로 참여한 11명의 해외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추정수입실적보고 및 2009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사업다각화방안 △현존선 입급 및 탈급방지 방안 △인력 효율적 관리방안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공균 회장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경영혁신관리 TFT를 가동하여, 30%정도의 강도 높은 경비절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의 관계자는 “이번 전략회의는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전 직원에게도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해양비전 2009’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강종희 원장은 1월8일 KMI 해양수산 전문지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KMI 경영구상을 종합한 ‘KMI 해양비전 2009’를 발표했다.

강종희 원장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향후 3년간 KMI가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여 ‘KMI 연구수행계획(2009~2011)’, ‘5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및 ‘KMI 경영목표 실행계획(2009~2011)’을 수립했으며, 이 3가지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2009년도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KMI 해양비전 2009’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KMI 해양비전 2009’는 금년도 경영비전과 2대 핵심사업, 3대 역점 추진사업, 4대 창의혁신 과제, 5대 경영목표 실행계획 그리고 부서별 주요 행사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종희 원장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KMI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도 KMI 비전을 ‘경제난 극복과 KMI 세계화’로 설정하고,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20일에는 '수산전망대회', 2월 12일에는 '해운·항만·물류 동향과 전망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KMI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5월에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동력 확보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7월에는 진취적인 해양수산인 양성을 위한 해양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KMI 해양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초·중등교사를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KMI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영문저널'을 6월과 12월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종희 원장은 "KMI 조직 안정과 내부 화합을 통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차별 축소, 깨끗한 연구원상 구현,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연구의 실용화와 함께 5대 중점연구과제 추진 등 5대 경영목표를 실천함으로써 KMI가 내외부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월9일자로 임종관 연구위원을 해양물류연구부장으로 선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1주년 맞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이 1월21일자로 공단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공단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성과를 꼽은 사례로 공단 발족 약 1개월전에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기름의 방제 처리였다고 전했다.

방제 처리로 공단에서는 전 임직원과 최첨단 방제선(39척) 및 장비가 총동원되어 근 6개월간의 작

업 결과, 해상방제와 도서 및 6개 해안지역의 방제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입구를 철저히 봉쇄하여 기름유입을 막아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조직과 직제를 종합적 해양환경관리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여 경영효율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부에서 위탁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해양부문의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양환경관리 부문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왔다.

한편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에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해양환경관리 전문가 양성의 산실이 될 해양환경기술센터의 건축 공사를 착공했으며, 1,000여개가 넘는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최고의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우 이사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로 아직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서해안 주민들이 하루빨리 과거와 같이 활기차게 생업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면서, "공단도 해양환경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2009년 1월12일자로 상임이사(해양방제본부장)에 이봉길(李鳳吉)씨를 선임했다.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봉길 상임이사(해양방제본부장은) 1971년 부산고를 졸업하여, 부산수산대(부경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을 거쳤다.

주요경력으로는 1979년 해양경찰청에 7급 특채로 입사하여, 해양경찰청 방제과장을 거쳐 김시과장, 해양오염관리국장을 지냈다.